

아산지회 보정들 10대 확보, 지역 양록농가에게 보급

- 아산시비에서 대당 70% 지원, 4년만의 결실 -

아산지회가 아산시로부터 보정들 10대를 확보, 지역 양록농가에 보급될 전망이다.

아산시의회는 보정들 대당 가격을 5백만원으로 책정, 이중 70%에 해당되는 금액 350만원, 총 10대분 3천5백만원을 무상 지원키로 올 초 결정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아산지회 이성복 지회장 및 각 면사무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보정들을 신청, 지원 받는 양록농가는 사슴의 인공수정이나 질병 치료, 절각 등 다양한 목적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산 이성복지회장은 “지원 받는 보정들 10대는 대학교수, 아산지회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우선 순위 10농가에게 보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대부분 지회 회원농가 위주로의 보급이 예상돼 지회 회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에도 아산시에 추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아산 양록농가당 1대씩의 보정들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아산시의 보정들 지원사업은 4년만에 결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다. 농가의 지원 건의가 최초로 접수되는 곳은 지역 축산계다. 물론 올해 예산을 확보 받기 위해

서는 일년 전에 지원요청과 함께 그 타당성을 먼저 지역 축산계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예산계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하는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아산지회는 이를 통과하기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양록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각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첫해에는 지역 예산계에서, 이듬해는 시의회의 불가방침에 고배를 마셨던 아산지회가 드디어 올해 그 결실을 보게 된 것. 아산시는 지역경제에 양록산업이 미치는 긍정적 결과를 인정, 사슴 인공수정 차원에서 보정들 지원을 결정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 양록산업을 아산시의 대표 산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이성복지회장은 전한다.

“지난 4년 동안 부서 관계자들과 자주 만남을 갖고 아산 양록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아산시도 이를 수긍했다”며 “아산시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지역 양록인들의 품질 향상 및 차별화 노력이 잘 어우러진다면 아산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양록**